



식약처, 마약류 최면진정제·마취제 오남용 의심 치과 점검결과 발표

- 처방 상위 등 치과 30개소 점검, 오남용 의심·취급 보고의무 위반 17개소 조치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'26.2월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,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취급내역 미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(분석기간 '24.11~'25.10)하여 최면진정제(미다졸람)·마취제(케타민 등) 처방 상위 등 치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.

식약처는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·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·투약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.

<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(업무 외 목적 사용) 관련 적발 사례 >

사례1 치과의사A는 환자에게 **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**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간 향정신성 의약품 **미다졸람·프로포폴** 등을 총 27차례(월평균 3.8회)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함


사례2 치과의사B는 환자에게 치주 후 처치, 치석제거 등 마약류의 **처방근거가 부족함**에도 불구하고, 약 9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**미다졸람·프로포폴** 등을 총 30차례(월평균 3.3회)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함

아울러, 점검 과정에서 취급내역 미보고·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*하였다.

*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오남용 의심 수사의뢰를 동시 진행한 것임(총 17개소)

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“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·남용할 경우 신체적·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,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”고 강조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최면진정제·마취제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<p>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.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다면, 24시간 익명·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☎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“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” 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/p>	 <p>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</p>
---	---



#ADHD #살빼는 약 #나비약 #마약 #대마 #향정
“마약 문제로 힘들 땐”
언제 어디서나 누구나
 고통스럽고,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**1342**가 함께 하겠습니다.
1342
 당신의 일상 24시간 사이
통화내용 비밀보장!
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처	책임자	과 장	공 석
	마약류오남용감시단TF	담당자	사무관	조우재 (043-719-2842)

